

초점

‘날강두’로 전략한 호날두 축구팬들 ‘우리형’ 물었다

팀K리그 vs 유벤투스 친선전, 45분 의무 출전 조항 불구 ‘노쇼’



‘우리형’이라고 불리며 절대적인 인기를 누린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유벤투스)가 바다로 떨어지는 것은 한순간이었다.

K리그 올스타인 팀K리그와 호날두가 소속된 유벤투스는 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이벤트성 친선 경기를 했다. 오전부터 서울과 경기 일대에 호우경보가 내려질 정도로 곳은 날씨였지만, 이날 경기를 보겠다는 팬들을 막을 수 없었다. 6만석이 넘는 서울월드컵경기장 티켓은 발매 당일 3시간30분이 채 되지 않아 매진됐다.

이탈리아 세리에A 디펜딩 챔피언인 유벤투스가 23년 만에 내한하는 것이기도 했지만, 관심의 중심엔 세계적인 스타 호날두가 있었다.

2007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소속으로 한국을 찾은 호날두는 12년

만에 경기를 뛰러 왔다. 34세로 선수 생활 황혼기에 접어든 호날두를 볼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는 의견도 많았다.

유벤투스 선수단이 오후 12시45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을 통해 입국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공항은 인산인해를 이뤘다. 별도의 입국 행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팬들이 선수단을 맞이했다.

경기장에는 유벤투스, 특히 호날두 이름이 새겨진 유니폼을 입고 온 팬들이 많았다. 호날두가 과거 몸담았던 레알 마드리드(스페인)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잉글랜드)의 유니폼도 눈에 띄었다.

그러나 이날 유벤투스 선수단이 탑승한 전용기가 기상 악화로 연착되면서 모든 일이 꼬였다. 당초 입국하기로 한 12시 45분이 아닌 2시께

한국 땅을 밟았다. 입국장에 모습을 드러낸 시간이 오후 2시45분이다. 이로 인해 팬사인회 시간은 물론 유벤투스 선수단이 호텔에 도착하는 시간 또한 크게 늦어졌다.

호텔 도착 후 경기 시간에 맞춰 저녁까지 먹으면서 행사는 더 뒤로 밀렸다. 실상가상으로 호날두는 컨디션 조절을 이유로 팬사인회 불참을 선언했다.

킥오프 시간을 넘긴 오후 8시7분에야 경기장에 도착한 것도 모자라 당초 45분간 의무 출전 조항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호날두가 일정에 참여하지 않고, 경기에도 출전하지 않아 축구 팬들 사이에 논란은 더욱 커졌다.

디펜스타 측은 27일 입장문을 내고 ‘유벤투스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고 무리한 일정은 오히려 유벤투스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했지만 ‘호날두 노쇼 사태’의 후폭풍은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다.

이날 경기장에서 팬들은 호날두의 이름을 연호했지만, 호날두가 결국 나오지 않자 경기 막판엔 그의 라이벌 리오넬 메시(바르셀로나)의 이름을 외치며 조롱하기도 했다.

호날두는 그라운드엔 나타나지 않은 것은 물론 미스트존에서도 인티뷰 없이 지나쳐 취재진의 일성을 샀다. 여기에 귀국 직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집으로 돌아와 좋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면서 팬들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이 와중에 ‘우리형’은 ‘날강두(날강도+호날두)’로 전략했다.

한국 축구 팬들이 행사 주최사를 상대로 단체 소송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도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법률사무소 명안 측은 “호날두가 45년 이상 출전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 고액으로 티켓을 판매했다”며 “결과적으로 팬들은 티켓 가격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지 못했다”고 강조하면서 법적 대응 방침을 세웠다. 여기에 범법적인 내용의 전용기가 기상 악화로 연착되면서 모든 일이 꼬였다. 당초 입국하기로 한 12시 45분이 아닌 2시께

뉴스

경찰야구단, 14년만 역사 속으로... “야구사 슬픈 날”

의무경찰 제도 폐지 따라 8월 선수들 전역 후 해체

경찰야구단이 14년 간의 활동을 공식적으로 마무리했다.

서울경찰청은 30일 오전 청사 내에서 ‘경찰야구단 해단식’을 열고 그동안 지원해 준 한국야구위원회(KBO)에 감사인사 등을 전했다.

행사는 단기 전담, 감사장 및 표창장 수여 등의 식순으로 이어졌다. 이날 해단식에는 경찰야구단 구단주인 이용표 서울경찰청장을 비롯해 정운찬 총재 등 KBO 관계자, 선수단 등이 참석했다.

이 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구단주가 된지 정확히 25일이 되는 날인데, 선수들의 멋진 경기를 보지도 못하고 해단식을 갖게 돼서 너무 아쉽게 생각한다”면서 “비록 해단하지만 14만 경찰은 야구단이 제대해서 프로야구에서 쉴 때 열렬한 팬으로 응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야구단 해체는 의무경찰의 제도 폐지에 따른 것이다.

경찰야구단은 국방부 산하 상무와 함께 프로·아마 야구선수들의 병역 문제 해결, 경력·기량 단절 해소 등에 크게 기여해왔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 따라 의경제도가 완전 폐지된다는 내용이 2017년 발표되면서 결국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경찰야구단은 지난해 17명이 제대



30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진행된 경찰야구단 해단식.

한 후 새 선수를 뽑지 않았고, 현재 남아 있는 선수 20명이 오는 8월 전역하면 완전히 해체된다.

정운찬 KBO 총재는 “오늘은 대한민국의 야구사에 슬픈 기억으로 남게 될 것”이라며 “KBO 수장으로서는 경찰야구단이 2020년 도교올림픽까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했지만 역부족으로 달성하지 못해 미안하다”고 아쉬운 심정을 전했다.

경찰야구단은 2006년 프로 20명·대학 5명 등 총 25명의 선수로 창단됐다.

경찰야구단의 한 기수는 20여명으로, 1기부터 11기까지 230여명의 선수가 다녀갔다. 2011년부터는 퓨처스 리그(2군) 8시즌 연속 우승이라는 성과를 달성했고 최형우(KIA), 양의지(NC) 등 현재 KBO 리그를 대표하는 여러 선수들의 성장고리 역할을 했다.

역대 성적은 2006년 5위, 2007년 4위, 2008년 6위, 2009년 2위, 2010년 2위, 2011~2018년 1위다. 특히 2008

년 11월 유승안 감독이 부임한 이후 성적이 급상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해단식에서는 유승안 감독과 선수들도 마지막 감사 인사를 전했다.

유 감독은 “처음에는 선수가 25명뿐인 약하고 힘없는 구단이었지만 경찰청에서 선수 숫자를 40명으로 늘려주는 특정한 지원을 해줬고, KBO의 탄탄한 불적 지원으로 강팀을 만들 수 있었다”고 말했다.

주장인 김태균 수경은 선수 대표로 남달한 소감을 통해 “경찰야구단 역사의 마지막 일일로서 그 자부심을 제 가슴 깊은 곳에 간직하고 선명하게 새기겠다”면서 “비록 저희를 끝으로 경찰야구단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지만 경찰야구단은 제 마음 속에 영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후 김 수경은 선수 모두의 사인이 적힌 사인 배트를 이 청장에게 전달했다. 사인 배트는 경찰 박물관에 전시될 예정이다.

고진영, 여자골프 세계랭킹 1위 올랐다

2위 박성현 ...박인비 5위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메이저 대회 2승을 따낸 고진영(24)이 세계랭킹 1위에 복귀했다. 29일 한국시간 발표된 여자골프 세계랭킹에서 1위를 차지했다.

지난 1일 박성현(26)에게 내 준 정상왕관만 되찾았다.

고진영은 이날 끝난 에비앙 챔피언십에서 최종 합계 15언더파 289타를 쳐 김효주(24)와 평상산(중국), 제니퍼 쿵(미국) 등 공동 2위 그룹을 2타 차로 따돌리고 우승의 기쁨을 맛봤다.

이번 시즌 두 번째이자 통산 2개째 메이저 대회 우승 트로피다.

고진영은 지난 4월 ANA 인스퍼레이션에서 우승하며 첫 메이저 대회 우승의 감격을 누렸다. 3월 밴크 오브 호프 파운더스컵까지 더해 가장 먼저 3승 고지를 밟은 선수가 됐다.

아울러 2015년 박인비(31)가 PGA



챔피언십과 브리티시 오픈 등 메이저 대회 2승을 달성한 이후 4년 만에 한 해에 메이저 2승을 일궈낸 선수가 됐다.

고진영의 랭킹 포인트는 8.93점, 1위에서 2위로 내려간 박성현은 8.50점이다.

렉시 톰슨(미국), 호주동포 이민지가 3, 4위를 유지했고 박인비(31)는 다시 5위로 복귀했다. 이정은(23)은 8위로 3계단 떨어졌다.

K리그2 전남, 파비아노

감독 경질...전경준 대행

프로축구 전남 드래곤즈가 팀 성적 부진의 책임을 물어 파비아노 감독을 경질했다고 30일 밝혔다.

파비아노 감독은 전남 클럽 사상 최초의 외국인 감독으로 큰 기대를 모았다.

스페인 3부 리그 데포르티바 폼포스텔라 감독을 거쳐 2011년부터 2017년까지 포르투갈 프리메이라리가 에스토릴에서 코치와 감독을 맡았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에버턴을 이끌고 있는 마르코 실바 감독의 수석코치도 지냈다. 실바 감독이 떠난 뒤에는 팀을 그대로 이어받아 이탈리아 최우수 감독으로 수차례 선정되는 등 전술적인 역량을 인정받았다.

하지만 전남에서는 쉽지 않았다. K리그2 2라운드 현재 승점 22(승4무11패)로 리그 8위로 내려앉았다. 최근 최하위 서울 이랜드에게 탈미를 잡히는 등 2연패에 빠졌다.

전남은 “선수단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경질 이유를 설명했다.

■ 숲이 있는

지리산 둘레길

바쁜 일상, 각박한 도시에서 벗어나
지리산에서 잠시 쉬어가세요

지리산 둘레길은 지리산 주변 3개도(전북, 전남, 경남) 5개 시·군(남원, 구례, 하동, 선정, 함양)을 잇는 295km의 장거리 도보길로 전라 구례군은 지리산은천, 칠새미골, 회연사, 설진강, 운주루, 파야골, 연곡사 등을 지나며 주변-산동 구간부터 물어재-기탄 구간까지 총 6개의 코스로 구성되어 있다.